

콘텐츠

김나영.....	2
김시현.....	7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나영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0 글로벌지역학부
파견시기	2024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년 3월 2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 전반적인 학교 생활

Warrensburg는 버스나 지하철이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항 또는 캔자스시티까지 가는데 비용이 꽤나 발생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면 자매교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시골인 만큼 밤에는 달을 선명히 볼 수 있고, 날씨가 따라준다면 별도 아주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시골이고 학교 내부와 기숙사 근처에 풀밭이 넓게 있는 만큼 벌레도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밤 9시 즈음부터 풀밭과 인도에 바퀴벌레가 짝 깔려 있어서 교환학생 초반에는 이 부분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밤이 되어도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방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는데도 여름에만 주의하면 못 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없어 공기가 쾌적하고 하늘도 맑아서 생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월마트 서들이 화요일 마다 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은 늘 화요일에 월마트에 가서 구매하였습니다. 미국은 과일과 유제품, 고기가 한국에 비해 많이 저렴하므로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과 치즈, 우유, 요거트, 소고기 등 여러 음식을 사서 먹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한국에 없는 여러 종류의 피넛버터도 맛볼 수 있으니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할 것도 많고 들어오는 정보도 많아서 정신이 없을 수 있으나, 모르는 것이나 헷갈리는 사항들은 직접 물어보거나 메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꼼꼼히 해내면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르는 걸 바로바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학교에서 오는 메일은 매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사 일정이 정기적으로 메일을 통해 공지되는데, 즐겁고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욱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Rec center가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학교 행사도 진행하고, 클라이밍, 헬스, 배드민턴, 배구, 농구, 헬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시설을 적극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 학비 및 결제 수단

저는 신한 은행의 'SOL Travel 카드'를 만들어 갔는데, 미국 생활 중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학비를 낼 때 이 카드에 외화를 충전해 놓고 학교 내부에 있는 USBANK에 카드와 여권을 가져가면 USBANK의 계좌에 돈을 옮겨 주십니다. (USBANK 계좌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REC center에 USBANK 계좌 개설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USBANK 계좌에 달러를 옮겼으면, payment를 처리할 때 USBANK 계좌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학비 및 활동비와 같은 비

용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래블월렛, 신한 So1 Travel 카드, 달러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세 개를 가져갔는데, 주로 앞의 두 카드만 사용했습니다. 카드는 안전하게 최소 두 개 정도는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카드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안 챙겨 갔는데, 생각보다 현금을 쓸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를 빌리게 된다면 현금이 필요하고, **dining dollar**¹를 충전할 때도 현금을 **office**에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은 너무 부족하지 않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USBANK**에 외화를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귀찮을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UCM은 등록금과 별개로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수업 마다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 예상 외 큰 지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였습니다. 저는 어학 수업도 들었는데, 어학 수업은 한 수업이 두 세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각 세션 마다 청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수업

수업은 최소 학점은 필수로 채워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금과 별개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예산에 맞추어 수업을 등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수업에 따라 다르며 실습이 있는 수업은 수업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학 수업과 전공 수업 둘 다 수강하였는데, 어학 수업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전공 수업에서는 배운 영어를 응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전공 수업 중 토론형 수업이 하나 있어서 이 수업은 완벽히 따라가기에 제 정보나 전문성에 부족함을 느꼈으나, 커리큘럼을 보고 예습 및 사전 조사를 해 가면 이 부분을 보완하여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이라 그런지 수업에 있어서 교수님, 학우들이 배려도 많이 해주고 모르는 부분은 친절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도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주변에 많이 물어보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배우기 어려운 전공이나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기초 단계 수업을 수강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교환학생 생활에서 가장 큰 배움과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 학생 기간 동안 전공 학점으로 꼭 채워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수업에서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 수업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라 따라가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따라가기에 수업이 너무 어렵거나 쉽다면 담당 선생님께 레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학 수업은 한국 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러 국제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저는 처음부터 **UCM**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 최종 결정이 늦어져 자연스럽게 기숙사 신청도 늦게 하게 되었는데, **UCM**에서 가장 낙후된 기숙 시설인 **Ellis**에서 생활하였습니다. **UCM**으로 교환학생을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기숙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partment**인 **The Crossing**이나 **Residence Hall** 중 가장 시설이 좋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Fitzgerald Hall**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The Crossing**은 아파트 형태의 거주 공간이나 에어컨/난방 조절은 방 별로 따로 할 수 없으므로 룸메이트와 적정 온도를 잘 맞추시기를

¹ Dining dollar는 학교 내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인데, dining dollar로 결제하면 세금 미포함 금액으로 결제 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아주 강하게 낮은 온도로 틀어서 실내 온도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와 실내 온도를 맞추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서 여름에 두 번이나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통로의 날은 힘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 처음에 입주할 때 에어컨 쪽 먼지 꼼꼼히 닦고 바람 방향을 알맞게 조절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Ellis Hall**에 거주했는데, **Ellis Hall**은 학교에서 다리 건너 있는 기숙사이고, 근처에 도로가 있어 풀밭 면적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바퀴벌레가 덜 보였습니다. 그러나 **Nickerson** 같이 풀밭을 지나 기숙사로 가야 한다면 여름에 많은 바퀴벌레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인근 풀밭 면적이 넓은 기숙사에 거주한다면 풀밭에서 뛰어 노는 다람쥐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매우 큰 바퀴벌레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럴 땐 바퀴벌레를 잘 잡는 룸메이트, 수트 메이트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잡아야 합니다. 월마트에 벌레 스프레이 종류가 많으므로 필요 시 구매하고, 사용법을 익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작은 거미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미 여름에 많은 바퀴벌레들을 마주하였기 때문에 작은 거미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욕실에서 욕실화를 신는 일이 드문 것 같은데 욕실화를 현지에서 사려면 꽤 비싸고 한국인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욕실화랑 거실화 정도는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욕실화를 가져간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도 욕조가 깨끗하지 않거나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욕실화를 꼭 챙겨 다녔는데, 그냥 다이소에서 적당한 거 하나 구매해서 쓰거나 집에서 사용하던 거 가져가서 다 쓰면 버리고 오면 됩니다.

Ellis는 **Ground floor**에 **Dining**과 편의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Laundry room**과 공용 주방도 **Ground floor**에 있습니다. **South Ellis**와 **East Ellis** 사이에 있는 세탁실은 공간도 작고 세탁기 5개, 건조기 5개 밖에 없지만 아침에 가면 사람이 적어서 쾌적하게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East Ellis**와 **North Ellis** 사이에 있는 세탁실은 세탁기와 건조기 수가 더 많고 공간도 넓어서 그런지 이곳에서 빨래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세탁실 바로 앞에 공유 주방이 있습니다. 저는 **South Ellis**와 **East Ellis** 사이에 있는 세탁실과 방이 가까워 이곳에서 세탁을 하였는데, **Ellis** 생활하면서 단수, 세탁기 고장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빨래는 미루지 말고 제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긴 연휴 (**Fall break, Thanks giving Day**)가 시작하기 바로 전날에는 오후 3시까지만 세탁실을 운영하므로 연휴 전에는 세탁이 밀리지 않게 특별히 주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모든 문은 열쇠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까먹어도 룸메이트나 옆 방 친구들에게 부탁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도 열쇠는 항상 잘 챙기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 그 외

미국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매우 건조해서 피부 보습에 필요한 크림과 마스크 팩을 많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실내에도 강한 냉방과 난방으로 많이 건조할 수 있으니 평소 보다 2-3배 정도로 많은 크림을 사용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많이 사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학기 중간에 휴일이 있는데,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Warrensberg**에서 벗어나 미국의 여러 도시를 체험하는 것이 의외로 영어로 대화할 수 있고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Fall break**에 여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데, 이 시기는 미국의 연휴가 아니라 학교의 방학이라 여행 성수기도 아니고, 여행하기 좋은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행지를 잘 골라서 가면 쾌적하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돈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에도 돈을 꽤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오기 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여유 자금을 모아 두시면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 동안 mint e-sim을 사용하였는데 첫 이용자 할인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여 넉넉하게 신청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월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료 체험 가능한 E-sim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게 되므로 결국에는 돈을 더 주고 기존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불도 옷도 입고 버릴 것들을 꽤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부치는 택배, 학기 끝나고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닐 짐의 부피와 무게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세탁기 힘이 강해서 옷이 쉽게 상하므로 빨래망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중간 사이즈와 큰 사이즈, 총 두 개를 챙겨 갔는데 세탁할 때마다 사용했더니 옷이 조금 덜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조기도 거칠게 돌아가서 건조기 돌리면 보풀도 많이 생기고 옷이 상하긴 합니다. 너무 섬세한 옷은 관리하기 힘들 수 있으니 짐 챙길 때 고민하고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학기 중에 가거나 미국에서의 일정을 완전히 끝낸 후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아웃&한국 인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학기 종료 후 미국-캐나다-미국 일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비자 비용도 추가로 들고 귀국 전 모든 짐을 다 들고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선과 비용을 잘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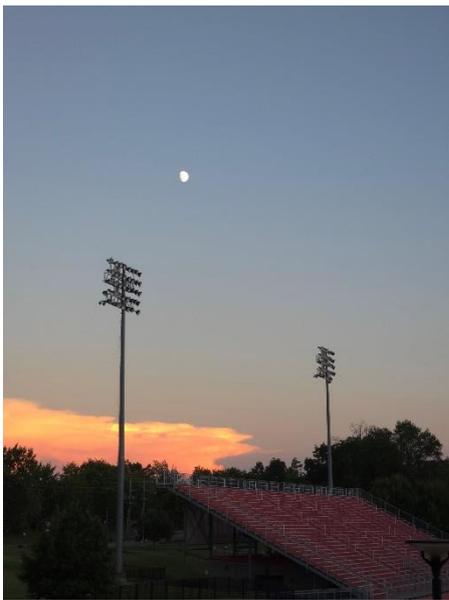
여름에 비가 자주 왔다 그쳤다 하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작은 우•양산을 가져가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arrensburg Downtown



Dining Hall Meal



Audrey J. Walton Stadium
(Nickerson Hall과 The Crossing 사이에 있는 경기장)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김시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학번/공간환경학부
파견시기	2024 학년도 2학기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5 년 3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p> <p>(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p> <p>(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p> <p>(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학기에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으로 어학교환을 다녀온 김시현입니다.

1) 학교 및 주변정보

UCM은 정말 한적한 시골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지에 펼쳐져 있기도 하고 넓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자체는 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내에 스타벅스, 칩필레, 타코벨 등 먹을 것도 많고, 강의실과 도서관 rec 센터 등 전반적인 시설이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월마트 가는 셔틀도 있고,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운타운에 카페와 음식점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운의 가게들은 오후 3-4시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살짝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30분 정도 걸으면 주변 호수도 볼 수 있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걷는 것을 좋아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쉬웠던 것은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Amtrak을 탈 수 있는 기차역이 있긴 하지만 횡수가 적고 시간대가 애매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특히 공항이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어 Fall Break나 Thanksgiving break 등 학기 중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버를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수업 및 학교 이벤트

어학교환의 경우 UCM에서 하는 IEP(어학수업)를 필수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IEP의 경우 수업 자체의 만족도는 높지 않지만 영어를 꾸준히 듣고 말하고 글을 써보며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나라의 교환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UCM에서는 교내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립니다. 특히 학기 초반에는 신입생을 위한 Kick off, Free dinner 롤러스케이팅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 저기 쫓아다니느라 바쁩니다. 학기 중에도 football, concert, flea market, bowling party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매주 있는데 학기 초반에 받는 캘린더를 참고하여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EP학생의 경우 ELI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는데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기에는 Kansas city로 야구경기나 뮤지컬을 보러 놀러가기도 하고, Thanksgiving dinner를 준비해주시고 mini party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학생을 위한 동아리 ISO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만나볼 수 있고 여러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friendship family입니다. 보통 2명의 국제학생과 현

지 가정을 연결해주는데 학기 초에 오는 메일을 잘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family의 집에 초대를 받아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light garden에 함께 놀러간 다거나 주변 식당을 함께 가는 등 다양한 미국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3) 기숙사 및 식당

UCM에는 Residence hall과 Apartment 이렇게 2종류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Apartment는 방마다 개별주방,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있고 Residence hall은 공용주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숙사는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데 The Crossing이 가장 시설이 좋고 룸메이트가 있어도 개인방을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Crossing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sidence hall은 두 개의 방이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The crossing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숙사 컨디션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짐을 옮기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Nickerson, Ellis X) 저는 처음에는 Nickerson hall residence를 배정을 받았는데 사람이 많지 않은 편이고 공용주방이 2개라 음식을 해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기도 하고 유독 습기가 많이 차 고생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친한 한국인 친구가 Apartment 중 하나인 Foster/Knox로 이사하게 되면서 함께 이사하게 되었는데 Residence hall을 주방/거실과 방으로 개조한 것이라 시설이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에 주방이 딸려 있어 음식을 해먹기 좋고 외국인 룸메와 지내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학교 식당은 meal plan과 dining dollars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meal plan은 학교 dining hall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권으로 학기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Foster/Knox로 이사하면서 음식을 많이 해서 먹어서 50회도 많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물론 추가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많을수록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dining dollars는 교내에 있는 스타벅스 칙필레 타코벨 편의점 등에서 세금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3번 정도 100달러를 충전하면 10-20달러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학기 초반에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을 해먹을 때 식재료는 주로 매주 화요일 월마트에 가 사왔지만 매주 화수목 3시에 rec 센터 지하에서 열리는 cupboard에서 식재료를 주워 오면 식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주로 월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조금 지난 상품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데, 과일이나 야채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통조림류나 파스타소스, 냉동된 고기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받고 나서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가끔 1년은 지난 것들이 있더라구요.

4) 기타

파견교를 정하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비자를 준비하기 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UCM과 직접 소통하며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자세히 순서를 안내해주시기도 하고 메일로 공지사항이나 필요한 것들을 계속 보내주시기 때문에 특히 메일 확인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기숙사 신청이나 공항 셔틀버스 등) 또, UCM의 경우 OT 시작 전날 저녁까지 캔자스시티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학교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정해지면 비행기표를 먼저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밤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교환학생 담당자와 학생들이 마중을 나와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OT가 진행되는 동안 Walmart에 데려가주고 이전 학생들이 두고 간 Donation 물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불이랑 옷걸이, 접시, 냄비, 바구니 등 쓸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요금제는 Mint mobile 3개월을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여 왔는데 OT때 1개월권(무제한은 X)을 주기도 하지만, 중간에 번호 이동으로 기간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6개월을 미리 해버리는 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Toss 카드와 트레블월렛 카드를 만들어서 왔는데, 이렇게 충전한 돈으로는 학비를 결제할 수가 없어 저는 OT 때 만든 US BANK 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했습니다.(환전 송금 수수료 때문에 살짝 더 비쌌) Toss카드와 트레블월렛 모두 불편함 없이 사용했지만 둘 다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US BANK에 어느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1/N 하기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계좌 달을 때 남은 돈은 나중에 현금으로 전부 돌려줍니다!)

저는 종강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행을 할 계획이라 한국으로 미리 택배를 보냈습니다. 캐리어 한 개는 버리고 한 개만 들고 다녔는데 대부분 캐리어 통째로 한국으로 택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리어 통째로 보내려면 상자로 싸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택배는 KT EXPRESS를 이용하여 보냈는데, USPS나 UPS로 직접 한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교내 우체국이 없어 근처 USPS나 UPS로 직접 가서 업체까지 택배를 보내야합니다!

2학기에는 노동절, Fall break, Thanksgiving break 종강이후 까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간이 꽤 많습니다. 저는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LA, 시카고, 라스베가스, 뉴욕, 토론토까지 여러 도시들을 여행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애틀이 가장 깔끔했고 안전한 도시인 것 같아서 가을여행으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욕을 갔는데 사람이 특히 많고 어딜 가든 붐벼서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한다면 그 시즌은 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5) 필수품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오면 학기 끝나고 후회합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나 한식(불력국, 김, 캔통조림, 고추장, 불닭소스 등 적당히! 한인마트 있어요), 화장품과 의약품(생각보다 건조하니 인공눈물 필수), 수저세트, 빨래망, 화장실/실내용 슬리퍼, 손톱깎이 등 자잘한 물품들은 다이소에서 미리 털어오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전자제품은 전압 호환되는지 확인해보고 가지고 오세요!!

6) 마무리

오기 전에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낯선 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와보니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까 싶을 정도로 즐거운 한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는데 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는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오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지는 미리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하지만 학업공부만 치열하게 하기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여러가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부딪치는 것들을 내가 직접 해결해가며 배워갈 수 있는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